

팩트리어트 미사일

▶ 박수완, 진승환, 강대오, 권성윤(대전대신고등학교)

우리 동네를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를 잡아라!



리포트

세종시가 대전시에게
빨대효과를 일으키는가?

영 상

그곳이 알고싶다 - 대전시를 향한
만들어진 위협: 세종시는 악당이다?



각오한마디!

미국의 강력한 지대공 미사일인
팩트리어트 미사일처럼
사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에
팩트를 폭격하겠습니다!

팩트체크 리포트

세종시가 대전시에게 빨대효과를 일으키는가?

팩트체크 계획 수립하기

➔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

세종시가 출범되고 나서 세종이 본래의 역할인 지역균형발전을 수행하지 못하고 대전이나 충청권 도시들의 인구를 흡수하는 등 빨대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기사들을 많이 보았다. 하지만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인접한 세종시와 상생하지 못하고 자칫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이 과연 사실인지 우리 손으로 검증하고 싶었다.

➔ 팩트체크 방법에 대한 계획

1. “세종시가 대전의 인구 등 자원을 빨아들이며 대전을 약화시키고 있다.”라는 근거를 검증하기 위해 대전에서 세종으로 유출된 인구에 대한 통계자료, 대전 내의 인구 이동과 세종시와의 상관관계, 논문 등을 통해 분석하여 정말 세종시로의 대전시 인구 유출이 심각한 정도인지 검증한다.
2. “세종시가 본래의 목적인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 등의 기능을 잘 수행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근거를 검증하기 위해 세종시 출범 당시에 있었던 헌법 재판소 판결, 논문 등을 통해 법적인 분야에서 세종시의 본래 목적이 정말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이 맞는지 검증하고 도시학 분야의 전문가에게 질문, 통계자료등을 통해 세종이 그 기능 등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지 검증한다.

3. “세종시가 행정복합도시라는 이유로 예산도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및 충청권 상생에 방해가 되고 있다”를 검증하기 위해 세종시의 재정 건전성, 예산 집행 실태 등을 통해 세종시가 필요이상으로 예산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세종시가 대전시 등 충청권 상생에 도움이 된 사례 등을 통해 세종이 상생에 방해가 되는지를 검증한다.

체크해보기

01 찾아보기

들어보기

직접해보기

반론의견

뉴스 기사에 대한 근거 조사

1. “대전·충남·북 인구 흡수… 세종시, 블랙홀 전략”(2022.10.07.) -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3034>
대전, 청주 등 충청권에서 세종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12만명에 달함. 이종배 국회의원은 “정부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수도권 인구의 유입으로 세종시가 채워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충청권에서 인구가 유입되면서 블랙홀로 전략했다”고 주장함.
2. “세종시는 블랙홀… ‘충청인구 빨대효과’ 심각(종합)”(2019.10.08.) - 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8073351063>

세종시가 본래의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대전 등 충청권에 피해를 주고 있음. 박덕흠 의원은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충청권 공조를 통해 만들어졌으나 인구를인접 충청권에서 흡수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함. 함진규 의원 또한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유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도 더 많이 가져가는 등 필요 이상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함.

3. “세종시, 가장 필요한 시설은 ‘보건의료시설’”(2021.01.03.) -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https://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619>

‘2020년 세종시 사회 조사’에서 조사 했을 때 수요가 가장 많았던 것은 보건의료시설임. 수치상가장 격차가 심한 보건 분야를 보면 세종시 의료 시설 580개(2022년 말), 대전이 99028개(2022년 초)이며 대략 550과 100000으로 이를 비율로 나타낼 시 1:181.8이라는 격차를 보여줌. 이는 세종의 의료 인프라 수요와 두 도시 간의 의료 격차와 비교하였을 때 오히려 해당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입이 부족함을 뜻하며 세종시가 과도한 예산을 받는다는 주장이 부적절함을 알 수 있음.

4. “[기고] ‘행정수도’ 세종, 그리고 푸트라자야”(2023.02.28.) - 굿모닝 충청 신상두 기자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85010>

말레이시아의 행정수도 푸트라자야는 훌륭하게 성공한 행정계획도시의 표본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세종시의 롤모델이 되는 도시임. 그러나 1995년에 건설된 이 도시도 기존 목표치인 인구 33만 명에 못 미치는 11만 명의 인구 수를 보여주고 있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책이나 논문 자료

1. 이경기, 조진희, 이유환, 이만형, 이재은, 윤두원, 이진희. (2020). 세종시 집중화 현상 대응 관련 법률 개정방안. 연구보고서, (), 1-123. (52쪽)

- 충청권 내에서 세종시로 인구 유입 현황을 시·군·구 단위로 분석한 결과, 대전 유성구, 서구,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천안시에서 세종시로 유입 이동수가 높게 나타남.

2. 김정완. (2021). 세종시의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 효과에 대한 평가: 인구와 부가가치를 중심으로. 정책개발연구, 21(2), 41-76. (65쪽)

-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세종시는 원래 설치목적인 수도권의 과밀해소보다는 인근 충청권의 인구를 흡입하는 역분권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세종시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인구 분산을 유도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권화 조치와 함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요소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설치된 세종시는 수도권으로부터 인구는 어느정도 흡입했지만 부가가치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충청권으로부터는 인구와 부가가치 모두를 흡입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비해 그 흡입력 또한 강력하다. 인구 측면에서 있어 세종시는 구도권보다 충청권으로부터 2.6배에 달하는 흡입력을 발휘했다. 이를 통해서 세종시는 설치목적인 수도권의 원심분리기 보다는 충청권의 블랙홀로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이지현, 전명진. (2018). 세종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0(1) (62쪽)

- 2010년의 경우 세종시 지역으로 이주한 유입인구의 18%가 이주 사유를 주택으로, 12%가 직장으로 적시하였으나 2012년에는 주택이 36%, 직장이 26%, 2015년에는 주택이 40%, 직장이 2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종시 출범 후 주택 및 직장으로 인한 요인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2015년 동안의 이주 사유를 종합하면 주택이 45%, 직장이 32%를 차지해 신도시 건설에 따른 신규 주택 구매와 직장 이동에 따른 이주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세종시 순 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대전시에서 세종시로 인구 이동이 큰 기여를 했지만 서울, 인천, 경기로부터의 기여도는 미미하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검정하고 있다.

- 지금까지 29조원의 자금이 투자되었고 향후 2030년까지 78조원이 더 투자될 예정인 세종시 건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한 정책 평가가 경제, 사회, 국토개발, 행정 등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김중훈, 박천보. (2012). 신도시 주거개발이 인접도시에 미치는 주거 및 인구영향.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2(2), 219-220. (220쪽)

- 대전 서남부권 개발은 총 3단계로 진행되는데, 1단계인도안신도시는(사업기간: 2003-2012년) 6,109천㎡ 면적에주택 24천호, 인구 68천인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도안신도시는 세종시와의 거리가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세종시의 중추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즉 도안신도시의 주거환경을 활용하여 세종시 거주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역할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도안신도시는 중부 생활권의 안정적 택지공급과 다양한주거문화 충족을 위해 친환경·자족도시로 계획되었으며기존의 원도심 및 둔산신도심과 함께 대전의 3대 생활권으로 발전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5. 송재민, 김채현, 박성희. (2019). 세종시 출범이 인접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1(3), 1-19. (1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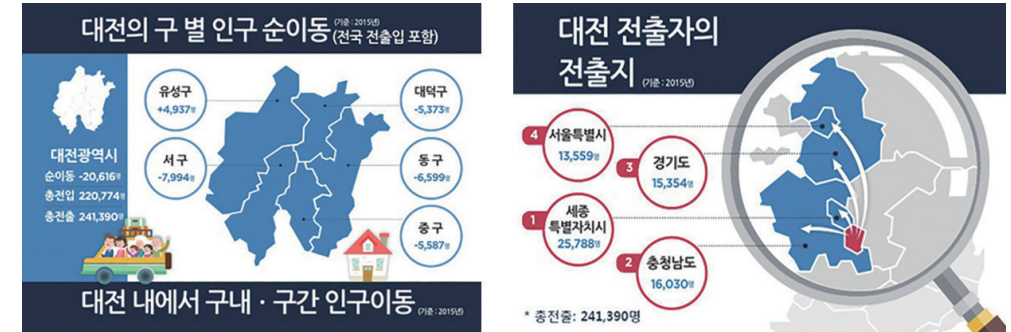
- 세종시의 인접지역인 대전시, 천안시, 공주시 청주시, 계룡시의 경우 2012년을 기준으로 전후 5년간 종사자수 변화율을 비교해 본 결과 모든 지역에서 2012년 이후 종사자수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할당효과 분석 결과 모든 지역에서 2012년 이후 종사자수 증가율 둔화에 있어 지역할당효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세종시 출범 이후 인접지역의 지역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차차분 분석을 통한 전국 다른 시군구와의 종사자수 증가율 변화 비교결과, 시간더미와 세종시 인접지역 더미의 곱으로 정의된 교차항의 계수 값이 음(-)의 값을 가지긴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세종시 출범이 인접지역 종사자수 변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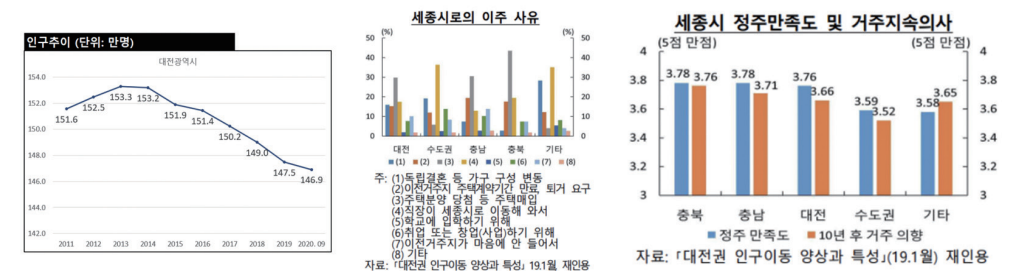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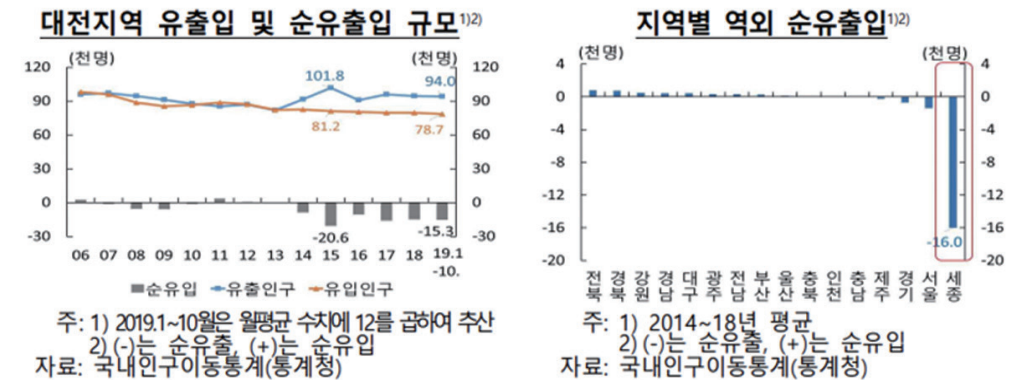
-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사이트 조사

1. 『최근 + 10년간 + 대전지역 + 인구가동통계』 보도자료



2. [보도자료] 대전세종충남 인구 유출입 현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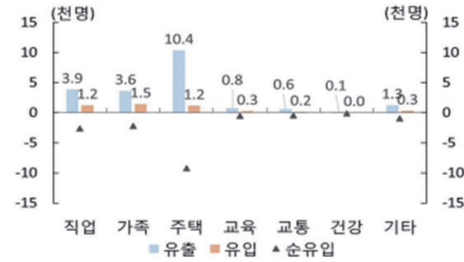
3. 지방재정 365

세종시로의 순유출 및 세종 입주물량



자료 : 부동산114, 국내인구이동통계(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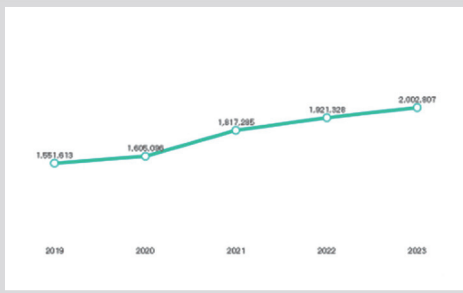
세종시로의 사유별 유출입 규모¹⁾²⁾



주: 1) 2014~18년 평균
2) (-)는 순유출, (+)는 순유입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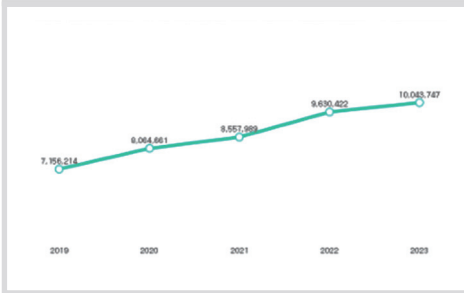
세종지역 예산액 추이

[단위: 백만원]



대전지역 예산액 추이

[단위: 백만원]



세종시와 대전지역 예산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증감률에도 큰 차이가 없음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상호 교수 인터뷰

Q1. 세종시의 본래 목적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고 그 기능을 분산시키는 것이 목적일텐데 오히려 또 다른 요인이 되어 오히려 이촌향도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것이 아닌지 오히려 기능을 더욱 한 곳에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점이 들어 “세종시가 본래의 목적인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기능 분산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제 대답의 결론은 “부작용은 인정하지만 당초 목적도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건 옳은 시도이고, 소기의 성과도 있었고, 당초 목적을 끝까지 우리 모두가 지속가능하도록 해야하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물에 가서 승능을 찾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우물에 가서 물을 뜨고, 밥을 지어서, 승능을 만들어야하는데, 지금은 우물에 간 정도의 시기가 끝난 겁니다 앞으로 밥짓고 승능 만들어야 완성되는 거죠. ㅎㅎㅎ

전문적으로 말하면, 국토의 균형개발이 목적이면 서울과 수도권사람들이 세종시로 내려와야하죠. 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인구이동(수도권 -) 세종 전입전출인구나 신규 산업단지면적 증가, 경제활동인구 증가등이 될 수 있을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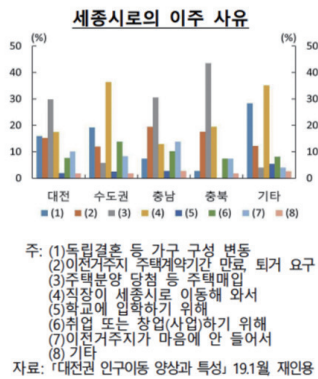
중앙부처공무원의 이동과 서울로 가는 인구를 중간에 잡아두는 효과는 있습니다. 당초 목적이 지금까지로 봐서는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도시가 역할을 하려면 최소 30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면에서는 이정표적인 역할을 한것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 반론

대전에서 세종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많다고해도 그들이 다시 대전으로 돌아오면 문제가 없지 않은가? 실제로 대전으로 유입된 인구들 중에서는 세종에서 온 인구가 가장 많다.



➔ 재반박

그래프를 보면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주해온 인구의 이주 이유가 주택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주택을 목적으로 이주를 하는 것은 대체로 장기적 이주가 될 가능성이 높기에 대전에서 세종으로 간 인구가 대전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결론 작성하기

“세종시가 대전시에게 빨개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이 주장의 근거 3개를 검증함.

1. 세종시가 대전의 인구 등 자원을 빨아들이며 대전을 약화시키고 있다.

(“대전·충남·북 인구 흡수... 세종시, 블랙홀 전략”(2022.10.07.) -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정부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수도권 인구의 유입으로 세종시가 채워질 것이라 기대

했지만, 충청권에서 인구가 유입되면서 블랙홀로 전략했다”고 주장함).

→ “세종시가 대전의 인구 등 자원을 빨아들이며 대전을 약화시키고 있다.”라는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통계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대전에서 유출된 인구중 세종으로 유출된 인구가 가장 많았다. 대전의 인구 유출의 시기를 봐도 세종시가 본격적으로 건설된 2013년부터 대전 인구의 순유출이 꾸준히 늘고, 대전의 본격적인 인구 감소가 시작된 시기도 이와 겹치기 때문에 세종시로의 대전 인구 유출이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세종시로의 이주 사유들을 보면 가장 높은 것이 주택이고, 대전에서 세종으로 온 인구의 정주 만족도 및 장기 거주의사도 높기 때문에 이렇게 유출된 인구가 대전으로 돌아오기보다는 세종에 장기적으로 종속되는 양상을 확인했다.

세종시로의 순유출 그래프와 세종의 시기별 입주물량 그래프의 상관관계가 유사함을 통해 다시한번 대전의 인구 유출 원인 중 주택이 큼을 알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대전시 내의 인구 이동을 보면 서구, 중구, 동구, 대덕구의 인구가 모두 감소하는 것에 반해 유성구의 인구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역시나 유성구로 이동하는 인구의 이주 사유는 주택이 많았지만 세종시로 이주하는 인구의 출신기초자치단체 비중 중 대전 유성구가 가장 많다는 것을 보며 대전의 인구가 원도심을 떠나 세종과 가까운 유성구로 이동하고, 유성구의 인구는 세종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대전 외의 인구 이동은 물론 대전시 내의 인구 이동을 분석하며 대전의 인구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첫번째 근거의 검증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2. 세종시가 본래의 목적인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 등의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는 블랙홀... ‘충청인구 빨대효과’ 심각(종합)”(2019.10.08.) - 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세종시가 본래의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대전 등 충청권에 피해를 주고 있음. 박덕흠 의원은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충청권 공조를 통해 만들어졌으나 인구를인접 충청권에서 흡수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함.)

→ “세종시가 본래의 목적인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 등의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근거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세종시의 본래 목적이 정말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이 맞는지 검증을 할 필요가 있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살펴보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목적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법적인 면에서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의 목적이 위의 것들이 맞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여러 논문들을 통해 현재 상황으로는 세종이 수도권 의 과밀해소를 해결하지 못하고 대전 등 충청권 도시에서 인구를 모으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세종으로 유입해온 수도권 출신의 인구들조차 대부분의 이주 목적 이 직장이 세종으로 옮겨와서였고 거주만족도나 장기거주의사도 부족한 것을 미루어 보아 이 인구들이 계속해서 세종시에 정착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여기 까지만 보면 세종이 현재까지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상호 교수에게 현재 세종의 실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세종이 현재까지는 본래의 기능을 다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맞지만 이러한 행정도시의 성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최소 30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아직까지는 앞으로 갈 방향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어 세종시의 성공/실패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이릅니다. 위의 의견을 증명하듯 세종시의 롤모델이자 성공한 행정계획 도시로 평가받는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조차 건설된지 28년이 지난 지금, 기존 목 표치인 30만명에 못미치는 인구 수를 보여주며 행정계획도시가 온전하게 제 역할을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결국 두번째 근거는 현재는 본래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이 맞지만 아직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려, “절반의 사실”로 결정함.

3. 세종시가 행정복합도시라는 이유로 예산도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및 충청권 상생에 방해가 되고 있다.

(“세종시는 블랙홀... ‘충청인구 빨대효과’ 심각(종합)”(2019.10.08.) - 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함진규 의원 또한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유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도 더 많이 가져가는 등 필요 이상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함.)

→ “세종시가 행정복합도시라는 이유로 예산도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및 충청권 상생에 방해가 되고 있다.”라는 근거를 검증하기 위해 정말 세종시가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가져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전과 세종

의 재정공시를 살펴본 결과 세종이 인구 대비 예산이 높은 것은 맞지만 더욱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건 분야의 예산을 보면, 대전과 세종 간의 의료 격차 등을 고려 했을 때 오히려 세종시의 해당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입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세종시의 재정자립도를 분석한 결과 대전을 상회하는 수치를 갖는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세종시에 배분되는 예산이 도시 규모, 인프라 차이 등을 고려하면 그렇게 지나친 수준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번째로 세종이 정말 대전 및 충청권 상생에 방해가 되고 있는 상황인지 알아봐야 한다. 논문 등을 살펴본 결과 세종의 건설이 가까운 대전 유성구에게 배후도시의 역할을 부여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이차차분분석 등의 통계자료 분석으로 확인한 결과 세종시 출범이 대전과 같은 인접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 등을 확인한 결과, 세종이 대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보다 긍정적인 영향으로 상생을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세번째 근거는 “사실이 아님”으로 결론 지을 수 있었다.

위의 과정을 통해 내린 최종 결론은 세종시가 대전의 인구를 흡수하면서 대전을 약화시키는 것은 맞지만, 세종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블랙홀로만 전락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할 절반의 사실로 판별났고 세종이 과도한 예산을 챙겨가면서도 상생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으로 밝힐 수 있었다. 따라서 주장에 대한 최종 검증 사실은 “절반의 사실”로 결정 되었다. 사실 위 주장의 진위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주장의 의도일 것이다. 이 주장이 대부분 정치권에서 촉발되었다는 것은 시작 단계부터 정치적 쟁점이었던 세종시를 둘러싼 하나의 정치공방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세종시가 대전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정적인 존재이냐 아니냐가 아닌 그것으로 인해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이다.

미디어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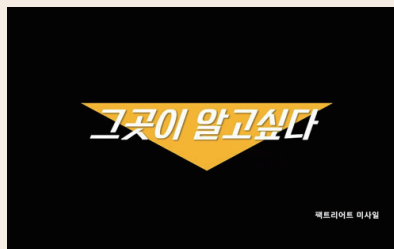
그곳이 알고싶다 - 대전시를 향한 만들어진 위협: 세종시는 악당이다?

콘텐츠 소개

➔ 기획의도

세종시 출범 이후 꾸준히 세종시가 대전과 같은 충청권 도시들에게 빨대효과 등의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정치인들의 발언과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세종시가 대전에게 빨대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 조는 팩트체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절반의 사실’ 즉 참과 거짓이 공존한다고 결론 내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종시의 영향을 제대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이러한 이분법적인 발언을 시민들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지역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생겼다. 따라서 위의 주장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고 오류를 정정하여 양 도시의 시민들에게 필요없는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려 한다.

➔ 상세설명



이 에피소드는 세종시와 대전시 사이의 관계와 논란을 다룬다. 세종시가 대전시에 재정, 인구적 측면에서 타격을 입힌다는 시 의원들의 공통적인 입장을 수습한 취재팀은 이 세 가지 근거를 검증하여 논란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나선다.

첫 번째 주장: 세종시가 대전의 인구를 빼앗는다. 취재팀은 최근 10년 동안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동한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통계 자료로 확인한다.

▶ 이 주장은 사실로 판단된다.



두 번째 주장: 세종시가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 분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 세종시의 목적은 국가의 균형 발전과 경쟁력 강화로 정의 되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도 건설 후 20여 년이 지나도 원래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를 보여준다.

▶ 이 주장은 현재로서는 판단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다.

세 번째 주장: 세종시가 행정복합도시로서 예산을 지나치게 소비하고 대전시와 충청권 상생을 방해한다.

- 취재팀은 세종시의 재정공시와 예산 투자를 분석하여 세종시의 재정 상황을 조사한다.

- 세종시의 예산이 인구 대비 높은 것은 사실이었으나, 세부 분야에서는 부족한 예산 투자도 확인된다.

▶ 대전과 세종시 간의 경제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악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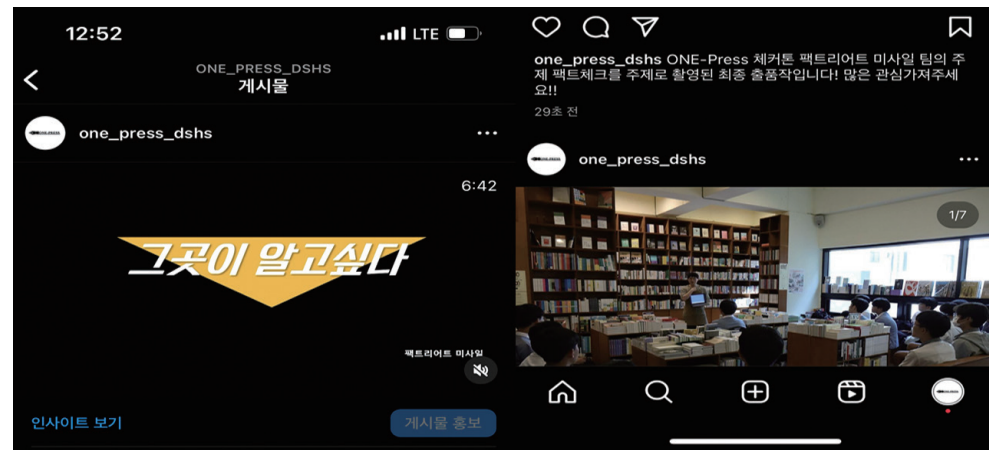
취재팀은 위 결론들을 종합하였을 때, 세종시가 대전시의 인구 유출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나, 세종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확실히 장담할 수 없으며, 예산 부문에서는 대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다. 또한,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파생된 논란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며, 시민들이 사실을 검증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필요성을 강조한다.

홍보 및 캠페인 활동

1. SNS 계정을 활용한 홍보

교내 언론 동아리 One-Press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영상을 게시하여 홍보했다. 언론 동아리의 SNS 계정으로서 정기적으로 학교 관련 소식들을 올리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전대신고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홍보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대전지역 내의 다른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2차로 확산되고 점진적으로 대전 내의 학생이 아닌 시민들에게도 홍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전대신고 교내 학생들은 물론 대전 시민들에게 관심사인 세종시가 대전에게 빨대 효과를 일으킨다는 주제에 관한 팩트체크 영상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려줌으로서 세종지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덜 수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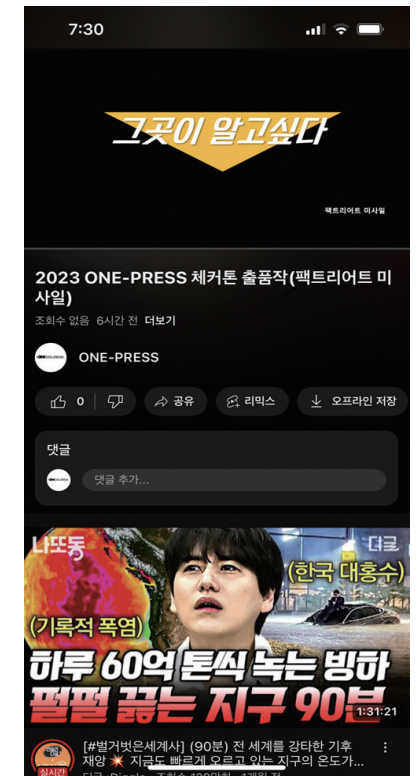


2. 유튜브 계정을 활용한 홍보

교내 언론 동아리 One-Press의 유튜브 채널에 해당 영상을 게시하여 홍보했다. 유튜브 계정도 학교 관련 언론 소식을 게시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가장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전대신고 학생들을 팔로잉한 사람만 게시물이 노출되는 인스타그램과 달리 알고리즘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기 때문에 점층적인 전파 없이도 효율적인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과 세종에 관련된 영상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타고 대전, 세종 시민에게 손쉽게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상 대체에 가장 걸맞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영상 산출물과 잘 어울리는 홍보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소감

박수완

정보가 물밀 듯이 들어오는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은 정보를 찾는 역량이 아닌 정보를 비판적으로 보는 비판적 사고 역량과 정보를 알맞게 구별해내는 역량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청소년 팩트체커로 활동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을 판별하는 과정을 통해 이 역량이 향상됨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내가 사는 이 지역의 소문의 진위여부를 판별하면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뉴스 기사에 나온 말들을 그저 당연한 사실이라고 곧이 곧대로 믿지 않고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비판적인 자세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단순히 팩트체크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영상을 산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실을 알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비록 영상 제작에 있어서 부족한 경험과 미숙한 실력으로 인해 대단히 완성도 높은 영상물이 산출되지는 못했지만, 검증하고자 했던 주장이 정치권에서 비롯된, 자칫하면 큰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이를 올바르게 정정하고 영상으로 널리 알린 우리의 활동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 더욱 뿌듯했던 것 같다.

진승환

초등학교 재학 중 부모님의 일자리 사정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에 따라 세종시로 건너갔던 친구들이 주위에도 참 많았었고 그렇기에 한편으로는 항상 궁금해하던 주제였습니다. 우리 지역을 다룬다는 나름대로의 책임감을 갖고 팩트체크에 참여했지만 지방 재정이라는 분야는 저와는 거리가 먼 분야였기 때문에 오류도 있을 것이고 그 결과에는 분명 제 견해 역시 들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걱정도 됩니다. 그래도 이 대회와 팩트체크의 과정은 저에게 정말 많은 성장 가능성을 열어준 기회였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며 팩트체크를 위한 다방면의 정보를 접하였고 단순히 세종시가 충청권에서 가진 빨대 효과, 세종시 출범이 주변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 행정복합도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여부만을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종시 내부의 인프라 문제, 지속적인 지방 재정 자립도의 하락처럼 현재 진행 중인 주변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확장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집한 자료들은 다시 한번 그 자체로 공신력 면에서 팩트체크 되어야 했고 그 과정이 굉장히 고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크게 보아 지역 갈등의 요인으로도 볼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다루어본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성장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마치겠습니다.

강대오

세종시 출범이 충청경제에 미친 영향 조사, 인구이동에 미친 영향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며 지역 간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종시는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종시와 대전/충청권 지역이 상생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고, 이를 실제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을 위한 다양한 계획과 정책을 마련하는 등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권성운

교육을 받고 학습을 하며 현대 사회에서 중요시되는 능력은 정보 수집 능력 뿐만이 아니라 그 정보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능력을 기르기 위해 우리가 정한 주제와 질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보고 그 질문과 정보가 타당한지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보는 활동을 하며 정보 수집과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길렀다. 또한 이런 활동을 하며 현대 사회가 정보화 사회만큼 잘못된 정보들이 많다는 것을 직접 느끼고 정보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